

[보도자료] 쿠팡, 제주도와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 위한 상생지원사업 진행

2022. 6. 24.



- 제주 지역 중소기업 온라인 진출 지원 위한 입점 품평회 진행 올 하반기에 상생 기획전 열어
- 라이브커머스 제작 및 송출부터 매출 증대 직접 도움 줄 수 있는 메인 배너 광고 등 지원
- 쿠팡, 제주도에 배송 캠프 설립 및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'힘내요 대한민국' 기획전 등 협력 지속

2022. 6. 24. - 쿠팡이 제주도청,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손잡고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.

이번 상생지원사업은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. 쿠팡은 지원사업의 첫 단계로 모집기업을 대상으로 입점 품평회를 진행하고 참여 업체를 선정한다. 주로 농수축산 등 제주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총 36개의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.

올 하반기에는 입점 업체와 함께 상생 기획전도 연다. 쿠팡은 신규 입점 업체를 중심으로 라이브 커머스 제작과 송출에 협력한다. 기존 제주 지역 중소기업 또한 최대 20% 할인 프로모션 및 매출 증대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메인 배너 광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.

쿠팡은 2020년 로켓배송을 위한 배송캠프 2곳을 제주에 세우며 본격적인 상생 파트너가 됐다. 제주도가 로켓배송 생활권이 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쿠팡에 입점한 제주 소상공인의 매출은 약 350% 증가했다. 지난 2020년 4월에는 제주도와 함께 '힘내요 대한민국' 기획전을 열고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.

한편 쿠팡이 지속해서 추진 중인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매출은 1년 새 69% 성장하며 전국적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. 이는 2021년 쿠팡의 전체 성장률인 54% 보다도 15% 높은 수치다.

쿠팡 관계자는 "전국적으로 구축한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통해 지리적 접근성이 다소 낮은 제주도의 특산물도 소비자들이 더욱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"며 "쿠팡은 제주 지역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